

(사)한국예절문화원

예절 문화론

교육자료

2020-05-13



- 한국문화는 정신문화중심으로 예와 덕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삶이 예속문화에 잘 나타나고 있다.
- 전통예속에서 관례는 ‘예의 시작’이라고 하며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목표를 복식으로 나타냈으며, 혼례는 장중하고 품격 있는 절차지만 즐겁게, 생의 마지막 관문인 상례는 보본의례(報本儀禮)로 정성을 다하여, 제사는 조상을 우러러 존중하고 의지하며 융성하게 한다.
- 그런데 계승된 전통문화를 허례허식(虛禮虛飾)이라 지탄하며 정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경우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문화의 절차와 형식 속에 소중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일 것이다.
- 유교국가로 출발한 조선왕조는 국가의 모든 문물제도를 비롯하여 풍속(風俗)이나 관습(慣習) 등 일반사회생활의 관행까지 예제를 일치시키려는 이념이 강요되었다. 그러나 『주자가례』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히 혼례는 잘 시행되지 않았다.
- 상고시대부터 풍습으로 익혀온 토속(土俗)이 있고, 부귀 · 빈천 · 원근에 따라 혼인의 의절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풍속이란 것은 자생적인 것이어서 ‘친영’을 국가가 강행했어도 사대부가와 서민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 우리나라에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 풍속이 있어서 신부집에서 혼인하여 살다가 ‘남귀여가(男歸女家)’하는 혼속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자가례』만을 따를 수 없다고 하여 친영례(親迎禮)를 실행하지 않았다.
- 처가에 머무는 기간은 정해져 있진 않았지만 고구려시대에는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머물었고, 고려시대에는 몇 년간으로 단축되었으나 이러한 혼인풍속을 국가가 규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명종(1546~1567)시기에 ‘반친영(半親迎)’ 운동이 일어나고 16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상당히 보급되었다. 이렇듯 전통예속을 끈질기게 지키려는 것과 사회상황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이 늘 공존하고 있다.

1) 전통 의식에 담겨있는 뜻

① 돌

- ㉠ 무병장수를 기원하여 상생(相生)의 의미를 둔 색동옷을 입힌다.
- ㉡ 아기를 안은 할아버지가 화살에 수수팥떡을 끼워서 천지사방(天地四方)에 쏘아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
- ㉢ 문방사우 병풍과 돌잡이 상에 놓는 문방사우는 학문과 문장에 뛰어나기를 기원하고, 국수나 무명실은 장수를 쌀과 돈은 부를 이룰 것이라는 의미를 두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다.

② 관례

- ㉠ 장자가 조계(陔階)에서 관례 하는 것은 주인의 도리를 기약함이다.
- ㉡ 관은 세 번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상급의 관이 되고 이와 함께 옷과 신발 · 삼가축사 · 초례축사(醮禮祝辭) 역시 점차 높아진다. 이것은 본인에게 앞으로 점차 뜻을 높여가라는 교훈을 깨우쳐주려는 것이다
- ㉢ 초례를 손님자리에서 하는 것은 술은 빈객을 대접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빈례로서 높이는 것이고 성인으로 존중하는 의미이다.

③ 혼례

- ㉠ 혼(昏)을 쓰는 것은 음양이 교차하는 황혼 무렵에 혼인식을 올렸음을 나타낸다.
- ㉡ 기러기를 예물로 신부집에 올리는 것은 인간의 덕목을 기러기가 갖고 있어서이다.
- ㉢ 청혼채단을 여가에 보내는 것은 성혼(成婚)의 의미가 있어서이다.

④ 상례

- ㉠ 운명 전에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생기를 받아 소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 ㉡ 우제는 돌아가신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이다.
- ㉢ 자식을 낳으면 3년이 지난 후에 부모 품을 면하므로 3년 상을 지낸다.

⑤ 제례

- ㉠ 시조제를 동지에 지내는 것은 동지는 양(陽)이 시작되는 날이고 시조는 성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 ㉡ 제사에 북쪽은 병풍을 친 곳이다.
- ㉢ 향을 피워 하늘에 계신 혼(魂)을 모시고 뇌주하여 땅에 계신 백(魄)을 모시는 의미이다.

- 세시풍속의 생성은 집단을 이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일 년을 주기로 하여 계절에 따라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고유의 풍속이 생기는데 이것을 세시풍속이라 한다.
- 풍속은 사계절의 기후와 풍토에 맞추어 생겨났으며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절기와 상관 있는 명절들이 중심이 된다.
- 일정지역 마을사람들이 어울리고 공동체로 응집되어 갖는 행사와 가족들이 함께 갖게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행위, 놀이, 먹거리 등도 같아지는데, 그 계절과 날이 되돌아오면 관습적으로 되풀이 되는 독특한 형태의 삶이 형성되어 생활화된다. 따라서 세시풍속은 오랜 생활 속에서 민족성과 지역성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민중생활사의 중심이 된다.
- 우리 세시풍속은 농경사회의 특성상 자연환경과 농업생활의 영향을 받아 하늘과 자연의 여러 신들에게 매년 반복적으로 기원하여 평안한 생존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새해가 시작되는 1월 달과 명절 등에는 오랜 관습에 의해서 조상과 제신(諸神)에게 제사하고 벽사초복(辟邪招福) 등의 행사가 집중되어있다.
- 중요한 명절은 홀수 달에 같은 날이 겹치는 날이며, 그 중 설날, 한식, 단오, 한가위 등을 4대 명절이라 하며 동지를 더하여 5대 명절이라고도 한다. 약 15일 간격으로 절기를 들게 하여 1년을 24절기로 나눈 것은 농업 생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역시 절기에 알맞은 먹거리, 풍속, 놀이 등이 전해져 온다.

- ① 대표적 음식은 떡국이다. 이것은 고대 태양숭배 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국’을 끓이는데 그 모양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하여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소망일(小望日)날 복도(福盜)하는 풍속이 있다. 종로 네거리나 종각, 부자 집의 흙을 파다가 집의 네 귀퉁이와 부뚜막을 바르는 것은 복을 비는 의미이다.
- ③ 보름날 화적(禾積)을 세워 풍년을 기원하였다.
- ④ 서울 풍속에 산언덕이나 물가에 가서 꽃놀이를 하는데 이것은 삼월삼진날 답청에서 유래된 것이다.
- ⑤ 강릉풍속에 3월의 좋은 계절이 되면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청하여 명승지로 모셔서 위안잔치를 벌인다. 이것을 청춘경로회(靑春敬老會)라 한다.
- ⑥ 단오에 공조(工曹)에서는 단오부채를 만들어 올린다.
- ⑦ 6월 15일 유두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어리를 감는 것은 불길한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다.
- ⑧ 삼복중에 붉은 팔로 죽을 쑤어먹는 것은 악귀를 쫓으려는 것이다.
- ⑨ 10월에 초하루부터 정월 보름까지 기로소(耆老所)에서는 우유를 여러 기신(耆臣)들게 올린다.
- ⑩ 동짓날 팔죽을 문짝에다 뿌려서 상서롭지 못한 약을 막고 잡귀를 물리친다.